

시라타키 신사의 예대제

8월 1일 시라타키 신사에서 열리는 축제는 축제 마지막에 미코시리고 하는 신여(이동식 신전)를 17m의 폭포 아래에서 지는 특이한 형태로 마무리됩니다.

원래 핫포초 주민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. 일반적인 방식처럼 신여 가마꾼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신사 본전에서 기도를 올린 후 다른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신여를 메고 마을 거리를 순행했습니다. 그리고 순행이 끝나면 신여를 시라타키 신사로 돌려보내고 제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, 가마꾼들이 신사 뒤 폭포에서 가마를 멘 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. 이 다키아비(폭포수 맞기)는 굉장히 활기 넘쳤기 때문에 축제에 계속 도입되었습니다. 현재는 가마꾼들이 용소에서 원을 그리며 폭포 아래를 지난 후 강가로 돌아갑니다.

이 축제는 전통을 충실히 지킨다는 점에서도 진귀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가자는 남성뿐이며 흰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. 흰색은 일본의 종교에서 깨끗함을 상징합니다. 대부분의 축제와는 달리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나 게임 등의 노점들은 전날 철거됩니다. 신여를 메고 마을을 돌고 폭포로 들어가는 것이 축제 당일에 행해지는 유일한 행사이며, 종교적인 의식과 세속적인 축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.